

내년 예산 291조 상정...전남 현안 대폭 삭감

## 주요사업 다 막히나

F1 경주장 880억 누락, 호남고속철 절반 깎여

정부가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정부의 국비 지원이 기대됐던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 경주장 건설사업비 88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F1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원 예산의 비율과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이 없게 되어 예산 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F1 대회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기재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F1 지원법안이 공포된 뒤 대통령령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으나 도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거액의 예산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데 대한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F1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F1 지원법 공포 및 대통령령 제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 숙원 사업인 J프로젝트 진입도로 개설(100억 원)과 광양만권 외곽순환도로 개설(100억 원), 여수공항 확장(200억 원), 무안공항 확장(200억 원) 등도 예산 반영도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타 SOC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SOC 사업의 상징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당초 요구액 4천8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천500억 원이 배정됨에 따라 2014년 완공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도 942억 원의 요구액에 절반 수준인 492억 원이 배정되는데 그쳤다.

여기에 '5+2 광역개발권' 사업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사업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광주 R&D 특구 예산은 50억원이 반영됐다.

이처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와 광주시에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한편 한나라당 등 여권과의 접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여결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민주당 여결위원들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며 "광주시와 전남도 측에서도 여권과의 긴밀한 접촉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랑의 옷' 483벌 정리 "힘든 줄 몰라요"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0여명이 28일 북구 용봉동 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추석을 앞두고 기탁한 남성 정장 483벌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다. 기탁된 정장은 이날 북구 지역 불우이웃에 전달됐다.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0여명이 28일 북구 용봉동 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추석을 앞두고 기탁한 남성 정장 483벌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다. 기탁된 정장은 이날 북구 지역 불우이웃에 전달됐다.

## 전남교육위 '의장 나눠먹기' 강행

수천만원 수수 폭로엔 '쉬쉬' 일관...비난 고조

의장선거 금품수수 의혹과 이권·인사 개입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전남도교육위원회(본보 9월 16일자 1·3면 보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의장의 임기를 무시한채 임시회를 소집, '의장 나눠먹기'를 강행키로 해 교육계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전남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5대 도 교육위원회 204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날 임시회에는 의장사임 동의

건과 신중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서건용 의장은 이날 신상발언 등을 통해 의장 사임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신임 의장으로는 서 의장이 사임을 밝히기 전부터 거론돼 온 모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교육위원은 "서 의장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만큼 임시회를 예정대로 개최키로 한 것"이라며 "신임 의장 선출 투표는 이날 또는 일주일

뒤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대해 끔찍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커녕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반쪽짜리 의장' 선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도 교육위원들의 행태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 공무원인 교육계 원로는 "교육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총리를 지명하지 25일 만에 이뤄진 표결에서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찬성표결에 임했으며, 인준 반대를 밝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준 강행에 항의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총리를 지명하지 25일 만에 이뤄진 표결에서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찬성표결에 임했으며, 인준 반대를 밝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준 강행에 항의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교육 행정을 잘 감시하라고 선히해 왔더니, 돈 선거 논란에나 오르내리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번 기회에 모두를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도 교육청 한 직원도 "교육위원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도 교육청까지도 비리가 난무하는 조직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면서 "민원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부끄러울 정도"라며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계서관 등에도 도 교육위원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일선 교육청의 조달청 구입 중에 도 교육위원이 개입하지 않는 건이 없을 정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도 이날 '반(反) 청렴, 전남교육위원회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교육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교육위원들이 각종 의혹과 소문만 휩싸이면서 전체 교육 공무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은 성역없는 수사로 교육위원과 교육 가족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5세기 마한 금동신발 출토

고창 봉덕리 고분서

전북 고창군 봉덕리의 백제시대 고분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금동 신발 1켢개가 출토됐다. <사진> 백제 금동신발은 지배계층의 유물로, 예술적인 가치와 함께 정치 체계 등 과거사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는 28일 "이곳을 발굴조사한 결과 석실분에서 금동신발과 중국제 청자 등을 비롯한 각종 유물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금동신발은 목 부분과 측판 2매, 바닥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각각 작은 못을 박아 결합했다. 측판과 바닥은 맞새김(투조·透彫)으로 장식했다.

바닥에는 스파이크 모양의 징 18개를 붙였고 부착지점은 꽃무늬로 장식했다. 또 바닥 중앙에는 용 1마리가 있으며, 발뒤꿈치 부분에는 고구려 장진1호분 고분벽화나 무령왕릉 허리띠 장식에 보이는 역사상(力士像)이 투조로 장식했다.

최완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은 "이곳은 마한의 모로베리국(牟



盧東離國)의 중심지였다"면서 "금동신발이 나온 것으로 미뤄 백제 영역화 이후에도 이 지역에 상당한 정치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정운찬 총리 '반쪽 인준'

野 불참 속 국회 통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인준을 받아 '반쪽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당의 표결 불참 속에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 무안남악2 휴먼시아(10년 임대) 입주자 모집중

전남무안군 무안읍 남악2리 1-1번지(전남도청소재지)에 위치한 무안남악2 휴먼시아(10년 임대) 입주자 모집중

구분	면적(㎡)	보증금(₩)	월세(₩)	연세(₩)
1호	44.000	8,000	45,000	420
2호	44.000	10,000	45,000	420
3호	68.000	10,000	65,000	420
4호	44.000	10,000	45,000	420

1호 2호 3호 4호  
- 무안, 내포, 무안읍 남악2리 1-1번지(전남도청소재지)에 위치한 무안남악2 휴먼시아(10년 임대) 입주자 모집중

임대문의

문의: (062)380-0400, 0401

문의: (062)380-0415

대한주택공사